



## 읽을 거리 우리 미술 지키기

### 우리 문화재를 지켜 낸 간송 전형필 선생

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간송 전형필은 독립운동가인 위창 오세창을 만나면서 우리 문화유산 수호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. 그는 흠어진 문화재를 수집하고, 일본으로 유출된 옛 작품들을 되찾아와 1938년 조선 최초의 근대 사립 미술관인 보화각(葆華閣)을 세웠으며, 해방 이후 혼란기와 한국 전쟁 중에도 우리나라의 문화재들을 보호했다. 그렇게 지켜 낸 우리 문화재로는 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(국보 68호), 훈민정음 해례본(국보 70호), 신윤복의 풍속도 화첩인 해원전선첩(국보 135호) 등이 있다.



- ▲ 한글 창제의 원리가 담겨 있다. 훈민정음 해례본(23.3×16.6cm/1446년 조선/국보 70호)
- ▲ 재미명 금동 삼존 불입상(높이 17.7cm/563년경/국보 72호)
- ▶ 간송 전형필(1906~1962/한국)의 사진(1928년)

### 훼손 위기에 처한 국보 바위그림

울산 울주 대곡리에 있는 반구대 바위그림은 선사 시대 우리 조상의 삶과 문화를 유추해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. 그러나 반구대 바위그림은 1965년 건설된 사연 댐으로 인해 물에 잠겨 훼손되었다. 정부와 울산시가 바위그림의 훼손을 막기 위해 물막이 댐을 방식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. 최근에는 물 수위를 낮춰 보호하고 있으나 울산시의 물 부족의 원인이 된다는 민원이 제기되며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.

###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한민국 국보 1호 송례문

송례문은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4대문(동: 흥인지문, 서: 돈의문, 남: 송례문, 북: 숙정문) 중 남쪽에 있는 대문이다. 2008년 2월, 방화로 인해 조선 시대 성곽의 남쪽 문인 송례문이 석축만 남은 채 전부 불타 버렸다. 막대한 자금을 들여 복원하였지만 기둥에 균열이 생기고 단청이 갈라지거나 벗겨지는 등 부실 복원이 논란이 되었다.



물에 잠긴 반구대 바위그림과 과거의 원형을 볼 수 있는 탁본



화재 전의 송례문(위)과 화재 후의 송례문(아래)